

II. IMF 경제 정보

1. 금주의 정책 이슈

□ 外債 早期償還 論爭

- (早期償還 贊成論)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으로 외채를 조기 상환하여 외채의 높은 금리 부담을 벗어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
 - 7월 15일 현재 가용외환보유고는 381억 달러
 - 이 외환의 90%정도를 선진국의 국채 형태로, 나머지는 외국 은행의 단기 예금이나 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음
 - 여기에서 얻어지는 평균 수익률은 리보금리(5.7%)를 밑돌고 있음
 -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채의 금리가 6~7%인 것을 감안하면 외환보유고를 외채 조기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이자 지불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
 - 당분간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고 금융기관들의 한은 차입금 상환도 지속될 것이어서 외환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
- (早期償還 反對論) 조기상환을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의 외환보유고 수준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
 - 현재의 외환보유고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양호하지만, IMF가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확실한 안정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음
 - IMF가 권고하는 외환보유 수준은 3개월분의 경상지급액이며, 우리나라의 연간 경상지급액을 1,500억 달러로 볼 때, 3개월분은 약 375억 달러
 - 외환보유고의 구성을 볼 때,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부분보다는 IMF나 IBRD 등에서 빌려온 것이 많으며,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이를 대비해야 함
 - 총외채중 단기 외채가 404억 달러(5월말 현재)에 달하며 기업들의 단기 현자금 용도 160억 달러에 달해 이에 대해 일시적인 상환 요구가 발생하면 다시 외환 위기를 겪을 수 있음
 - 동남아시아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, 우리나라에 대한 외채상환 요구가 갑작스럽게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

(정 반 석 bsjoun@hri.co.kr ☎724-4045)